

100321 주일설교 “위기 때 빛나는 믿음” 욥기(Job) 1:1

오늘 우리는 욥기의 인트로를 읽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냐하면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욥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은 실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 삼 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 나이다.” 욥기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씨름을 엿보게 되요! 불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신앙의 씨름을 합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많이 읽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바꿔서 “고난 중에도 난 여전히 믿는가?” 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욥의 이름은 “이요브” 라고 표기되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핍박받는 자” 에요. 욥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기억 속에 청렴하고 인내하는 표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지만, 결국 그는 그의 그 많던 재산, 자녀들, 건강, 명예까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듯했지만, 결국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도 기가막히고, 친구들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 구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광야 로템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느끼면서, 그의 영과 육은 외롭고, 심히 고단해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승리를 거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갈멜산에서와 광야에서의 그의 모습,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이처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늘 열심이었고 기적 또한 많이 행한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던 순간이 있음을, 그의 실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은 낙심에 빠지있으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 비관하기 쉽죠. 앞에서 갈멜산에서 얻은 승리는 사실 엘리야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낙망하여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너는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간절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줄로 여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이렇게 쫓겨 나오기 전에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갈멜산에서 얻은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바램 대로 일들이 되지 않는 때가 많아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생길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바램과 달랐지요. 사실 엘리야만큼이나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도 성경가운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스스로 말하길 “나는 하

나님께 열심이 특심이다” 라고 자부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낙심해 있을 때 주목해 볼 엘리야의 행동이, 자신의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13)을 보게 됩니다. 겹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 즉, 야훼/ 여호와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며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즉 죄를 짓고난 후 그들의 첫 행동은 무엇이었죠? 네,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감추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앞에서는 난 참 특별하고, 이렇게 특별한 난 혼자 밖에 안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연약한 (죄된: 하나님을 떠나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니, 지금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이세벨만 보고 두려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난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주를 위해 참 열심히 살았던 것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 이리실 수가 있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된다’ 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잃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 가는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된 모습이 너무도 작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앞에 서는 연습,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보단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하루 하루

를 살아내야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가 놓쳤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겠다고 하실 때도, 요단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에게 먹일 때도, 사르밧 과부에게 갈 때에도, 그녀의 집에서 이적을 행할 때에도, 비를 내리게 하실 때에도,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멸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사벨에게 쫓겨 도망가서 호렘 산 바위 틈 새에 숨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임재는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세미한 음성/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음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욘기 23장에서 욘의 고백과 같이,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욘의 인생에서 그의 앞에서 뒤에서 왼편 오른편을 다 돌아보아도 뵈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시기는 욘에게 연단의 시기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연단은 바람, 지진, 불을 지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욘도 새롭게 하였고, 엘리야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연단을 통해 새롭게 견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독일에 루드비히 왕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그의 포악한 성품 때문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숲 속의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지요.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져서 앞부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3” 이라는 숫자였는데 그게 삼 일인지, 석 달인지, 삼 년인지 아무튼 그 3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루드비히는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내가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

게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에게 잘 해줬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면서, 3일째 되던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 달이 지나도, 그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제야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하! 내가 본 글자가 삼년이었구나!’ 그래서 그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당시 그는 공작이었는데 바로 그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일, 삼 개월, 삼 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퍼져있었던 것입니다.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작의 선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기다림’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몇 십 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삼 일 뒤에, 삼 주 뒤에, 삼 년 뒤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양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옴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환경에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학업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 는 말처럼, 우리 모두 속사람을 믿음으로 단련하고 가꾸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